

---

**제주연구원-중국 산둥성 해양경제문화연구원  
MOU 체결 및 한중 국제학술세미나 개최**

---

2018. 7

제주연구원

## 1. 출장개요

### □ 목적

- 제주연구원은 중국연구센터 설립 이후 중국 내 연구기관과의 연구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
- 최근 해양경제의 잠재력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, 제주지역 또한 해양관광, 휴양·힐링(해양치유 등), 해양생물자원, 해양생태문화, 해양에너지 등 제주가 가지고 있는 해양 특화분야를 통해 글로벌 해양경제 선도 도시로 추진하고자 함
-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후 해양경제특별구, 남색경제, 해남 자유무역항 조성 등 해양경제발전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, 지난해 19차 당대회 기간 중 중국을 해양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천명한바 있음
- 중국은 산둥반도 블루경제구, 절강 해양경제발전시범구, 광둥 해양경제종합시험구, 푸젠해협 블루경제시험구, 텐진 해양경제과학발전시범구 등 5대 거점을 조성하고 해양경제 육성에 주력하고 있으며,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해양경제 산업의 장소 중심형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
- 따라서 제주연구원은 우선 산동성 해양경제문화연구원과의 MOU 체결 및 정기 국제학술 세미나 개최를 통해 중국의 해양경제특구의 벤치마킹과 제주의 해양경제도시 추진 및 중국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함
- 산동성 해양경제문화연구원은 산동성 사회과학원에 직속으로, 1982년

를 하고 있으며, 현재 22명이 재직중에 있음

- 제주연구원은 현재 산동성과의 교류는 없으며, 제주연구원-산동성 해양경제문화연구원 간의 학술세미나 개최는 향후 중국 산동성과의 교류 활성화 초석을 놓기 위한 목적이라 할 수 있음
- 특히 2018년은 제주도와 산동성 교류 10주년 해로써, 본 MOU 체결과 교류를 통해 제주도와 산동성 간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하고자 함

- 기 간 : 2018년 7월 25일 ~ 7월 28일(3박 4일)
-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: 중국 산동성, 산동성해양경제문화연구원
- 여행자 인적사항 : 김동진 제주연구원장, 정지형 중국연구센터장, 좌민석 책임연구원, 양자수 전문연구원

□ 주요일정

월 일 (요일)	출발지	도착지	방문 기관	업무수행내용 (수집할 자료목록, 질의할 내용 등)	접촉예정인물 (직책포함)
7월 25일 (수요일)	제주	청도	(이동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제주 출발→김포 도착</li> <li>• 인천 출발 → 청도 도착(14:55)</li> </ul>	
7월 26일 (목요일)	청도시	청동 황해호텔 층 회의실	2	제주연구원-산동성 해양경제문화연구원 MOU 체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중 국제학술세미나</li> <li>주제: 2018 제1회 한중 해양·문화 세미나</li> <li>- 정지형: 제주-중국 교류협력방안</li> <li>- 좌민석: 제주 해양산업과 한중 협력기회</li> </ul>	-해양경제문화연구원장 -해양경제문화연구원장 - sun ji ting 부원장 등
7월 27일 (금요일)	청도시	산동반도 블루경제구 산동성 해양 경제문화연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산동성 해양경제 특구 방문</li> <li>• 산동성 해양경제문화연구원 업무협의</li> </ul>	- 특구 담당자 - wang sheng - cui feng xiang 원장

## 2. 출장내용

### 1) 2018 한중 해양·문화 학술세미나

#### □ 개요

- 일 시 : 2018. 7. 26(목) 10:00~15:00
- 장 소 : 중국 청도(황해호텔)
- 참여자 : 김동전 제주연구원장, 정지형 중국연구센터장, 좌민석 책임연구원, 양자수 전문연구원

#### □ 주요내용

- 제주연구원은 제주-산동성 교류협력 방안(정지형 중국연구센터장), 제주 해양산업과 한중 협력기회(좌민석 책임연구원)를, 산동성 해양경제문화 연구원은 산동성 해양목장 개발현황과 발전방향(胡炜: 후웨이), 산동성 해양강성 발전방안과 한중 협력 기회(王丕: 왕성)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음

#### ■ 중국측 발표내용 요약

##### (1) 산동성 해양목장 개발현황과 발전방향(산동성해양생물연구원 hu wei)

- 산동성은 근해양식에 유리한 여건 등으로 미역, 전복, 해삼 등의 생산량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음
- 산동성의 해안선 길이는 3,345km 해역면적은 15.95만km<sup>2</sup>, 해만의 면적은

- 산동성은 2005년부터 수산자원 복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, 인공어초는 1,500만㎡ 가량 설치됨
  - 방류자금은 총 9.5억 위안이 투입되었으며, 방류 수산종자는 469억 마리, 생산액은 165.1억 위안에 달함
  - 하지만 전체적인 계획이 확립되지 않았으며 방류 품종과 분포, 해양생태 환경의 수용량 등에 연구가 미흡한 실정임
- 산동성은 향후 투초형(인공어초) 해양목장, 관광낚시형 해양목장, 저파형(저서패류와 해조류 증식) 해양목장, 전원형 해양목장을 중심으로 과학적 양식을 추진하는 것임
  - 이와 함께 심해 대형 가두리 양식, 양식가공선박, 양식플랫폼 등 장비형 해양목장을 개발하고 양식기술과 사물인터넷기술의 융합을 통해 양식 생산의 집약화, 장비화, 지능화와 더불어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달성하는 것임

(2) 산동성 해양강성 발전방안과 한중 협력 기회(산동성해양경제문화연구원 wang sheng)

- 산동성 해양강성 발전방안(이후 '방안')은 2018년 3월 시진핑 주석의 '중국의 해양강국 비전 달성을 위한 산동성의 역할 강화'에 의해 수립되었음
- '산동성 해양강성 발전방안'은 향후 5년, 길게는 17년의 장기 프로젝트로써 이미 구체적 목표와 전략, 세부추진과제와 정책적 지원 방안까지

해양 R&D 비중 3.1%로 확대, 해양 총생산 연평균 9% 성장과 GDP 비중 대비 23%로 확대하는 것임

- 2단계는 2028년까지 해양총생산 규모 3조 8,700억 위안 달성, GDP 대비 해양총생산 26% 확대,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임
- 3단계는 2035년까지 첨단 해양과학기술, 우수 해양생태 환경, 선진 해양문화, 효율적 해양관리체제를 확보함으로써 해양강성 목표를 달성하는 것임
- 한편 '산동성 해양강성 발전방안'은 구체적 목표제시와 함께 선도구역 육성, 베이(Bay) 경제 견인, 도서연계 발전, 반도(半島) 기능 강화, 글로벌 시장 개척 등 공간적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음
- 또한 상기 주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양과학기술 혁신, 해양생태환경 보호, 세계일류항만 개발, 해양신산업 육성, 해양전통산업 업그레이드, 스마트해양 프로젝트, 군민융합, 해양문화 진흥, 해양개방협력 확대, 해양종합처리능력 향상의 10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세부과제를 통해 추진할 예정임
- 이후 김동전(제주연구원장), 崔風祥 (취이평상) 원장 등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으며, 본 세미나를 통해 한·중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해양경제의 발전 가능성을 진단하고 향후 제주와 중국 지역 간의 연구협력 기반을 토대로 교류협력 강화와 해양 산업 활성화를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음
- 특히 산동 사회과학원 袁紅英(위안홍잉) 부원장이 참석하여, 산동성 해양관련 산업의 제주 투자기회 확대, 해양목장 활용을 통한 해양관광 협력, 산동서과 제주의 SWOT 분석을 통한 양 지역 시호사업의 협력

## mou 체결 및 한중 국제학술 세미나



### 2) 칭다오 팔대관및 올림픽요트경기장 답사

#### 개요

- 일 시 : 2018. 7. 26
- 장 소 : 중국 청도내
- 참여자 : 김동전 제주연구원장, 정지형 중국연구센터장, 좌민석 책임연구원, 양자수 전문연구원

#### 주요내용

- 팔대관풍경구는 중국 역사문화의 길이며, 칭다오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임
- 팔대관풍경구는 중국 고대 8개 군사 요충지 지명으로 "쯔징관(紫荊關)로", "닝우관(宁武關)로", "산해관(山海關)로", "취융관(居庸關)로", "리화이관(臨淮關)로", "정양관(正陽關)로", "한구관(函谷關)로", "자위관(嘉峪關)로", "우생관(武勝關)로" 등으로 구성됨

- 일부 건축은 1897~1914년 사이의 독일 점령시기에 지었는데, 대부분 건축물들이 1930년대에 지었음
- 이 지역은 1996년 중국 국가중점유적으로 지정되었으며, 2005년 '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'로 선정되기도 했음
- 팔대관풍경구의 특징은 공원 및 마당의 경치가 조화롭게 형성되어 각 길의 식물이 다양하며 러시아, 영국, 프랑스, 독일, 미국, 일본 등 20여개 국가의 건축문화가 융합된 것이 특징임1)

팔대관





### 요트경기장



### 3) 칭다오 블루밸리단지 방문

#### □ 개요

- 일 시 : 2018. 7. 27(금)
- 장 소 : 중국 청도내
- 참여자 : 김동전 제주연구원장, 정지형 중국연구센터장, 좌민석 책임연구원, 양자수 전문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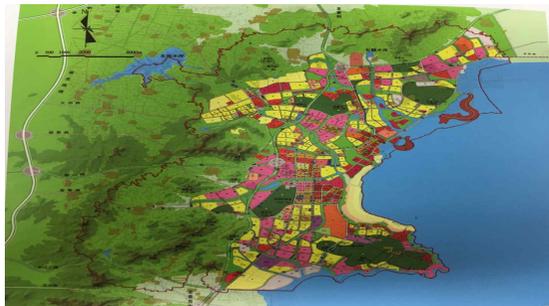
#### □ 주요내용

- 칭다오 블루밸리단지는 2014년 12월 중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가 <칭다오 블루밸리발전규획(靑島藍色硅谷發展規划)> 발표한 이후 건립하였음 2)
- 블루밸리단지는 칭다오시 라오산(嶗山)구, 청양(城陽)구와 지모(即墨)시의 일부분을 포함하며, 약 351km<sup>2</sup>의 육지구역, 225km<sup>2</sup> 해상구역으로 구성됨
- 칭다오 블루밸리단지는 중국 내부 황하유역과 징진지(베이징, 톈진, 허베이)

일본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어 두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이  
가능함

- 칭다오는 해양과학기술의 경쟁력이 우수한 도시로, 중국해양대학교 등  
7개 국가급 해양과학교육기관과 국가실험실, 심해기지 등이 있음
- 칭다오 블루벨리의 주요 발전 비전은 "1지, 3구, 5중심(一地三區五中心) 임  
- 블루벨리의 핵심비전은 중국 해양산업의 혁신적인 첨단지역으로의 성장  
이며, '해양 첨단기술 집약구역, '과학기술 산업발전 시범구역' ' 거주·  
투자·관광·레저·생태환경 적합한 구역"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
- 칭다오 블루벨리단지는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중심지, 해양산업 성과교  
역 중심지, 해양 신흥 산업 육성 중심지, 해양 교육문화 및 인재육성 중  
심지, 해양관광 및 레저·힐링 중심지 등 5개 해양산업 중심지를 육성하  
고 있음  
- 이와 함께칭다오 블루벨리단지는 해양바이오 제약, 해양신소재, 해양장  
비제조, 첨단양식업, 해수자원의 종합이용, 해양 재생에너지 자원, 해양  
환경보호 및 재난 방지 등 7대 분야의 기술혁신을 추진할 것임

산둥성 블루벨리 특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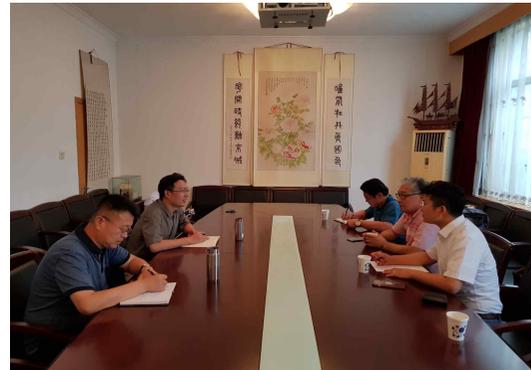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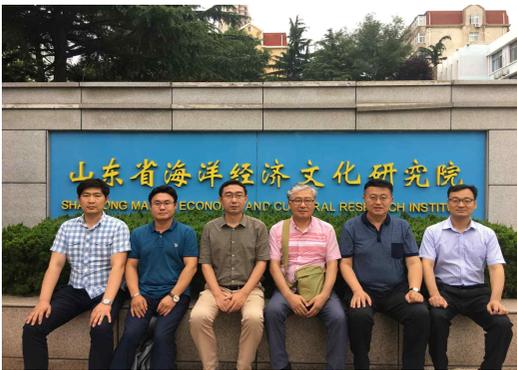


#### 4) 산동성 해양경제문화연구원 방문

##### □ 개요

- 일 시 : 2018. 7. 27(금)
- 장 소 : 해양경제문화연구원 3층 회의실
- 참여자 : 김동전 제주연구원장, 정지형 중국연구센터장, 좌민석 책임연구원, 양자수 전문연구원, CUI FENG XIANG 원장, SUN JI TING 부원장

요트경기장



##### □ 주요내용

- 산동성 해양경제문화연구원은 1981년 설립된 중국 최초의 해양전문 연구기관으로 해양구역경제, 해양산업경제, 해양문화산업 등의 이론, 기획, 정책연구를 하고 있음
  - 산동반도 블루벨리 경제구 및 해양 산동의 비전을 처음으로 제시하였으

구축, 지속가능한 해양생태환경 개발을 위한 '해양강성 발전방안'을 수립하였음

- 산동성 해양경제문화연구원은 '해양 산동' 비전을 처음으로 제시하였으며, 현재까지 중앙정부 및 산동성의 해양정책의 제언과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중요 기관이라 할 수 있음
- 현재 산동성의 해양기관은 55개소(연구소, 대학 포함)이며, 해양과학기술 인력도 전국의 40%를 차지하고 있어 해양과학실용 인프라는 전국 최고라 할 수 있음
  - 국가급 해양과학기술 혁신플랫폼 110여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 중대 해양프로젝트 50% 이상을 수행하고 있음
- 7월 11일에는 칭다오 '국제 명품 도시'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광과 연계한 산동성 및 칭다오의 발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임
- 현재 산동성은 구체적 목표와 전략, 세부추진과제와 정책적 지원 방안까지 공표되어 중앙과 산동성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양산업 발전 청사진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
  - 산동성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교류가 밀접하기에 해양 발전방안이 제주에 있어 어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함
- 제주의 해양도시 정책 도입 및 산동성 명품도시 구성에 있어 상호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양 지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로써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함